



순창군이 무료 카누체험교실을 열고 본격적인 수상레저산업 육성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창군 무료 카누체험교실

섬진강변 군민·관광객 대상 10월말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10시 운영

순창군이 무료 카누체험교실을 열고 본격적인 수상레저산업 육성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오는 6일부터 10월말 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순창군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섬진강변에서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2016년 카누 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카누체험교실은 해양수산부와 순창군이 후원하고 섬진강수상레저연맹이 주관해 진행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된다.

순창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체험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신청을 하면 간단한 안

전교육 및 노 젓는 방법 등을 배우고 난 후 체험할 수 있다.

체험 시간은 1시간 내외다. 특히 화탄마을 앞 섬진강은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얕아 카누체험에 적격인 장소다. 또 주변 풍광이 아름다워 1시간 동안 지루할 틈이 없다. 이미 지난해 10월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카누 체험교실은 7일 운영에 830명의 군민 및 관광객이 참여해 관광상품으로의 가능성이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카누 무료체험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수상레저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미 섬진강일대를 수상레저산

업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민간주도 섬진강수상레저연맹을 설립해 2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카누 15대를 제작한 상황이 다.

군은 앞으로 2018년까지 카누제작소, 방문자 센터, 카누제작교실 등을 만들어 유등 적성면 섬진강 일대를 수상레저산업의 중심지로 키워 나갈다는 계획이다.

이번 카누체험교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농촌개발과 전화 063-650-176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야생동물 피해 보상대책 마련

최대 80%까지 지급

임실군이 야생동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름에 잠겼던 농가의 걱정을 덜어주게 됐다.

군은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사태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보상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피해보상은 현지 조사를 통해 계산된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하며 각종 법령 등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전체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농의 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관내에서 직접 경작하



임실군이 야생동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름에 잠겼던 농가의 걱정을 덜어주게 됐다.

는 농작물 등으로 피해 발생일 5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2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하였고 오는 10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운영하

고 있으며,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남원청소년 흥부 베이커리 자원봉사

직접 만든 베이커리 어르신들에게 전달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배중철)는 2일부터 함께 행복을 나누는 청소년 흥부 베이커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제과 제빵 자격증 취득과 청소년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제과 제빵 결과물(쿠키, 단팃빵, 도너츠 등)을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흥부 베이커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원 관내 중·고생 중 평소 제과 제빵사를 꿈꾸며 자신의 진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5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국가 자격증 취득은 물론,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쿠키와 단팃빵, 도너츠 등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레크레이션, 안마, 말 동무 등을 통하여 흥부 사랑을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청소년 자원

봉사 활동이다.

본 프로그램은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재료비 등 사업비 일체를 지원하고, 허브빵 제과점(대표 김정례)의 재능기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이 꿈꾸는 진로 탐색과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정성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분야를 확대하고자 기획되었으며, 10월 말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프로그램지원사업, 새내기교육봉사단지원사업, 자원봉사 캠프 등 여러 분야의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1천 650만원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신나는 건강프로그램 운영

영양교육·구강관리 등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지역 내 6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는 '신나는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 스스로 건강생활실천 습관을 형성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새로운 건강실천 습관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함께 건강습관 실천해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건강프로그램은 눈높이 맞춤형교육으로 건강영양 간식 만들기, 올바른 구강관리, 금연·금주 바로 이해하기를 비롯해 여름철 감염병 예방 위한 첫걸음으로 손 씻기와

종합공예 작품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 아동들은 거부감이 없이 직접 영양 간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영양교육과 식품구성탐을 통해 5대 영양소를 배우고 운동 프로그램으로 비만 아동 및 키 성장 자극을 줄 수 있는 스트레칭과 신체 균형감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요법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사춘기 시기 감정 조절 장애 및 학습장애를 예방 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관리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건강관련 교육 자료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해 아동들이 건강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로컬라이프

순창군,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순창군이 폭염철을 맞아 경로당 노인 건강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이 운영하는 이번 건강교실은 의료원 건강증진팀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폭염을 건강하게 나는 요령 및 만성질환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고 즐거운 체조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하루 2개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일까지 10개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에는 마을 어르신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영근 보건의료원장은 "순창지역에 연일 34도에서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무더위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건강교실을 진행하는 만큼 어르신들 건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20개소 경로당에 대해 160회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만보기 등 운동용품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축협 전상두 조합장 무죄 확정

임실축협 전상두 조합장이 '조합장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3년간의 가나 긴 재판 끝에 지난달 28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지난 13년 5월 농협계열 사료 남품회사로부터 수년간 뇌물성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시작된 법정공방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조합장들에게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한 것은 각 지역 축협이 사료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사료량의 유지나 확대와 관련한 조합장들의 직무와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측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 지었다.

이 사건으로 뇌물 공여혐의로 같이 기소되었던 전(前)농협사료 전북지사장 2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무죄 결정이 되었다.

임실축협 전상두 조합장은 "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 마음의 큰 짐을 덜어냈다"면서 "그간 묵묵히 자신을 믿고 따라준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이번 재판을 계기로 다시 한번 조합과 축산발전을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양로시설입소자 유치

고창군(군수 박우정) 치료가 더 이상 불필요함에도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기초수급 노인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양로시설에 입소하도록 유도하여 안정적인 주거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급여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올해 장기입원사례관리 대상자 4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16명은 시설 입소토록 했고 그 중 6명이 도내 양로시설에, 5명은 자가로 복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양로시설에 국고지원을 하고 있으나 입소율이 낮은 실정인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해 장기입원사례가 증가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올 5월부터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기초수급 노인 중 일상생활 가능한 대상자를 양로시설에 입소하도록 연계하는 '양로시설 입소자 유치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입원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시설입소가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치료목적의 아닌 불필요한 입원의 경우 양로시설입소자 유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